

팬데믹 전후 주요국의 기업가정신 동향에 관한 연구 :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의 기업가정신지수를 중심으로

홍은영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e-mail:silver4ever@cnu.ac.kr

Research on entrepreneurship trends in key countries before, during, and after Pandemic : Focusing on the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s Entrepreneurship Index

Eun-Young Hong
Science Technology Knowledge Research Institute, Chung-Nam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전후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기업가정신 지수 변화에 대한 정책의 영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GEM 보고서는 24년 동안 세계 최초로 기업가정신 지수에 대한 데이터 기반 증거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이 데이터는 기업가의 태도, 인식, 의도, 동기는 물론 글로벌 기업가정신 생태계의 진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9개 분야의 13개 세부 지표를 조사하는 국가 전문가 설문조사(NES)에 초점을 맞춘다. 팬데믹 전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데이터를 사용해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기업가정신 지표를 측정했다. 결론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며, 변화의 패턴은 국가별로 유사하고, H-지수는 최근 7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미국은 B1(정부 정책 적정성), B2(정부 정책-세금 및 행정 부담), G1(시장 진입 용이성) 지수가 3개국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중국은 B1(정부 정책 적정성), B2(정부 정책-세금 및 행정 부담) 지수가 3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DI(초중고 기업가정신 교육) 및 I(기업가정신 수용 사회문화) 지수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모든 국가중 G1(시장진입용이성), H(물리적하부구조) 지수가 가장 높다.

1. 서론

지구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원 고갈, 전쟁 등으로 위협에 빠져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생태계 변화 등 다양한 기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인류의 삶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국가와 기업, 개인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직면한 문제에 기업가정신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가들은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재생에너지, 친환경 소재 등은 기

업가들의 혁신을 통해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다.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며, 이는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친환경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기업가정신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촉진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은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ESG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영 방식으로, 최근 기업가정신과 함께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가정신은 지구의 지속가능성, 탄소중립과 같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가정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혁신,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확산을 이루어낸다면,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GEM Report는 전 세계의 기업가정신 수준과 동향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GEM Report를 통해 국가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가정신의 수준과 동향을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다. GEM Report의 주요 시사점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가정신 수준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가정신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GEM Report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발전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과 함께 팬데믹 전후의 주요국의 기업가정신지수를 GEM Report기준으로 비교·분석하고 이들 국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팬데믹 전후 주요국의 기업가정신 동향

2.1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리포트

GEM Report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의 연례 보고서다. GEM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제 연구 컨소시엄으로, GEM Report는 GEM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의 기업가정신 수준과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이다. GEM Report는 다음과 같은 주요 지표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측정한다. 새로운 사업 창업자(TEA)는 최근 1년 이내에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사람의 비율이다. 사업가적 활동(EEA)은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등 기업가적 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이다. 기업가적 문화(EC)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이다. GEM Report에 따르면, 전 세계의 기업가정신 수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TEA 비율은 13.8%로, 2010년 대비 2.8%p 증가했다.

GEM은 크게 2가지 형태의 조사를 수행한다(GEM, 2023). 성인인구조사(APS ; Adult Population survey)와 국가전문가 설문조사(NES ; National Expert Survey)로 전자는 GEM 경제권 내 국가에서 2천 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인터뷰 설문이며, 후자는 국가별 선정된 전문가들이 작성하는 해당 국가 경제의 기업가정신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대한 의견을 수집한다(홍은영 · 최종인, 2023). 국가전문가 설문조사(NES)는 국가 기업가정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특성 측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를 기업가정신 기본조건(EFCs ; Entrepreneurship

Framework Conditions)라고 한다. 국가전문가 설문조사(NES)는 특정 경제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촉진(또는 저해)하는 GEM에 의해 확인된 조건으로, NES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데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기업가정신 변화를 A~I의 9가지 영역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A (창업자금)	B (정부 정책)	C (창업프로그램)
A1. 창업자금: 새로운 스타트업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있는가? A2. 창업자금 접근용이성: 이러한 자금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B1. 정부 정책·지원 및 관련성: 정부가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 하는가? B2. 정부 정책·세금 및 관리 부담: 새로운 비즈니스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가?	C. 정부 창업프로그램: 고품질 지원 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한가?
D (창업 교육)	E (대학 및 연구기관 기술이전)	F(상업 및 전문 인프라)
D1. 학교 창업 교육: 학교에서 창업아이디어를 소개하는가? D2. 대학 창업 교육: 대학에서 비즈니스 창업 강좌를 제공하는가?	E. 대학·연구기관 기술이전 정도: 연구가 새로운 비즈니스로 쉽게 전환되는가?	F. 상업 및 전문 인프라: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비용이 저렴한가?
G (시장진입)	H (물리적 구조)	I (문화)
G1. 진입 용이성·시장 역동성: 시장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성장하는가? G2. 진입 용이성·부담 및 규제:규제가 진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권장하는가?	H. 물리적 인프라: 우수한 품질, 가용성 및 경제성이 있는가?	I. 사회 및 문화적 규범: 문화가 기업가정신을 장려하고 기념하는가?

※자료: 홍은영·최종인(2023)

[그림 1] GEM의 NES의 9가지 영역

2.2 주요국의 기업가정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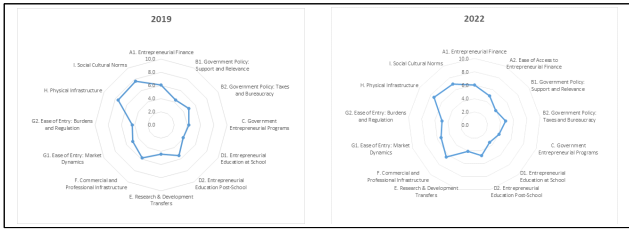
2.2.1 미국

미국에서의 COVID-19 초기 심각성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2008년-2009년 경기침체시 TEA(기업 창업 의사) 비율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처럼 우려하였다. 하지만, COVID-19의 경험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2020년에는 미국의 TEA가 약간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빠르게 회복하여 거의 팬데믹 이전 수준인 16.5%에 이르렀다.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신규 사업 등록 비율도 이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하여 팬데믹 이전 수준을 초과했다. 비즈니스 등록은 기업가 정도를 완벽하게 측정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이것은 미국이 강력한 기업가적 반응을 경험하고 있다는 추가 증거이다.

COVID-19 시대의 기업가 정신의 강력한 특징 중 하나는 혼자서 일하는 기업의 비율, 일명 "솔로프렌터십" 비율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보통 혼자 컨설턴트, 전문 서비스 전문가 또는 계약 근로자이다. 2021년에는 미국 성인

중 혼자서만 자신의 비즈니스에 남을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이 2020년 대비 거의 20% 증가했다. 기업이 정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솔로프렌너 중 일부는 경제적 필요 때문에 비즈니스를 시작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회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것은 비즈니스 기회 또는 COVID-19 기간 동안 더 유연한 근무 환경의 기회일 수 있으며, 이는 COVID-19 동안 더 중요해진 측면이다.

2022년 기준, 전체 13개 지수 중 7개 지수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5점미만의 불충분지수는 B1, B2, C, D1, D2, E, G2이다. 국가간 비교에서, 미국은 나머지 한,중,일의 B1(정부정책 적절성), B2(정부정책-세금 및 관리부담), G1지수(시장진입용이성) 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그림 2] 미국 기업가정신지수(코로나전후-2019/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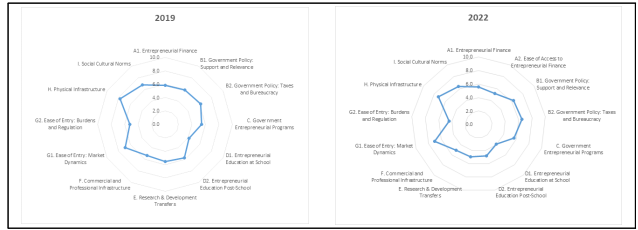
2.2.2 중국

중국의 경제는 2022년 2분기에 3% 미만으로 성장하고, 3분기에는 거의 4% 성장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현저히 낮은 성장률이지만, 팬데믹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그러나 비즈니스 불확실성은 가까운 미래에 기업가 정신을 억제할 수 있다. 중국의 성인 중 10명 중 7명 이상이 팬데믹으로 인해 2022년에 가계수입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성인의 비율은 해당 기간 동안 9%에서 6%로 감소하였으며, 다음 3년 안에 자신의 비즈니스를 시작할 의도가 더 가파르게 감소하였다. 2019년에는 26%였던 이 비율이 2022년에는 6% 이상으로 떨어졌다. 지난 해 동안, 모든 성인 중 절반 이상이 최근에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람을 알거나 자신에게 비즈니스를 시작할 기술과 경험이 있다고 동의했다. 비슷한 비율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좋은 기회를 보았지만,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실패 두려움 때문에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에는 5.9 (4위)에서 2022년에는 5.6 (11위)으로 떨어졌다. 의심의 여지없이 중국은 팬데믹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51개 국가 중에서 상위 10위 안에 있는 프레임워크 조건 4개를 가지고 있으며, 하위 절반에서 3개만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팬데믹의 경제 영향으로부터의 회복을 4.9로 평가하여 충분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러한 국가 중 41위로 랭크되었다.

2022년 기준 전체 13개 지수 중 4개 지수가 불충분한 것으로

로 나타났다. 즉, 5점미만의 불충분지수는 D1, D2, E, G2이다. 국가간 비교에서, 중국은 한,미,일보다 B1,B2(정부정책지원, 정부세금)지수가 높다.



[그림 3] 중국 기업가정신지수(코로나전후-2019/2022)

2.2.3 일본

일본 또한 COVID-19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으며, 성인의 1/4가 팬데믹으로 인해 2022년에 가계 수입이 낮아졌다고 보고했으며, 1년 전보다 약간 감소한 비율이다. 매우 적은 수의 일본인이 다른 사람이 시작한 새로운 비즈니스에 투자하며, 그다음 몇 년 안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인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이 비율은 천천히 상승하고 있다. 일본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운영하는 성인의 비율은 고소득 국가로서도 상대적으로 낮지만 팬데믹 시작 이후 안정적으로 상승하여 2022년에는 6.4%에 이르렀다. EBO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상승하고 다시 하락하며 2022년에 TEA와 맞먹을 정도로 상승했다. 이 기간 동안 남성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여성보다 약 두 배 더 많았다. 당연하게도 기업가 활동의 낮은 수준은 일본 성인 중 1/5만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을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 작은 비율이 자신에게 사업을 시작할 기술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거나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좋은 조건을 보고 있다. 이를 하려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은 실패 두려움으로 인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2022년에는 일본이 1년 전에 비해 충분한 조건으로 평가된 5개의 조건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고소득 일본이 여전히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는 지수가 있다는 것은 놀랍다. 일본은 51개 국가 중에서 "시장 진입 용이성: 시장 역학"에서 6위, "물리적 인프라"에서 8위로 랭크되었지만, "사회 및 문화적 규범"에서는 45위에 랭크되었다. 또한 일본이 기업가 자금 조건과 정부 기업이 프로그램 모두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불균형한 프레임워크 조건 성과는 왜 그렇게 많은 성인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022년 기준, 전체 13개 지수 중 8개 지수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5점미만의 불충분지수는 A1, A2, B2, C, D1, D2, E, G2, I이다. 국가간 비교에서, 일본은 한,미,중보다 D1(기초학력에서의 기업가정신교육)과 I(기업가정신수용사회문화)지수가 매우 낮다.



[그림 4] 일본 기업가정신지수(코로나전후-2019/2022)

2.2.4 한국

2021년에 한국의 GDP는 거의 1,800억 달러에 이르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모두 3% 미만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물가 상승은 미래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으며, 벤처 캐피탈 산업은 성장 가능성보다 자금 회수에 중점을 두는 투자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을 느꼈으며, 성인의 1/3가 2022년에 가계수입이 감소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비율은 2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성인의 약 1/4이 다음 3년 안에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이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국 성인 중 2명 중 1명은 누군가가 사업을 시작한 사람을 알거나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할 좋은 기회를 보았다. 자신에게 기술과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인의 과반수가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 다른 자신감의 지표는 지역에서 좋은 기회를 보더라도 실패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않을 사람은 5명 중 1명 미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는 한국 성인의 비율은 2019년 15%에서 2022년에는 12%로 느리게 감소했으며, 동일한 기간 동안 기업가 성별 격차도 확대되었다. 2022년에는 여성이 시작하는 사업보다 남성이 두 배 이상 많이 시작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2019년에는 13%에 그쳤던 대한민국의 성인 인구 중 2022년에는 20%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것은 근처 중국과 정반대의 상황이다. 2019년에는 한국에서 기존 사업을 시작하는 성인 1명당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성인이 약간 더 많았다. 그러나 2022년에는 한국에서 기존 사업을 운영하는 성인 2명당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성인이 거의 두 배로 늘었다.



[그림 5] 한국 기업가정신지수(코로나전후-2019/2022)

2022년 기준 전체 13개 지수 중 3개 지수가 불충분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5점미만의 불충분지수는 D1(초중고기업가 정신교육), E(기술이전), G2(시장진입의 부담과 규제)이다. 국가간 비교에서, 한국은 모든 국가중 G1(시장진입용이성), H(물리적하부구조) 지수가 가장 높다.

3. 결론 및 시사점

결론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지수가 상향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과거(2013)와 최근(2022)의 지수가 모든 국가에서 대부분 같은 패턴을 가진다. H지수(물리적 하부구조)는 모든 국가에서 최근(2022) 7점대로 나타났다.

국가별 차이점으로, 미국은 나머지 한,중,일의 B1(정부정책 적절성), B2(정부정책-세금 및 관리부담), G1지수(시장진입용이성) 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중국은 한,미,일보다 B1,B2(정부 정책지원,정부세금)지수가 높다. 일본은 한,미,중보다 D1(기초 학력에서의 기업가정신교육)과 I(기업가정신수용사회문화)지수가 매우 낮다. 한국은 모든 국가중 G1(시장진입용이성), H(물리적하부구조) 지수가 가장 높다. 미국은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 및 투자생태계가 성숙되어 있어 정부지원의 개입이 타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국가적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완화 네거티브정책이 유효했을 것이다. 일본은 아직도 사회적으로 창업을 매우 기피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창업생태계성숙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높은 수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 있다.

참고문헌

- [1] GEM(202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22/2023 Global Report adapting to a “New Normal”,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GERA).
- [2] GEM(2019),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8/19 GLOBAL REPORT,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GERA).
- [3] GEM(2020),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9/20 GLOBAL REPORT,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GERA).
- [4] GEM(2021),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20/21 GLOBAL REPORT,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GERA).
- [5] GEM(2022),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21/2022 Global Report Opportunity Amid Disruption,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GERA).
- [6] 홍은영 · 최종인. (2023). 한국 창업생태계 8년간의 변화 -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의 기업가정신지수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8(4), 503-534.